

김 지사, 창조적·혁신적 도정 위한 포럼 개최

부지사·실국장·직원 등 70여명과 열띤 토론·전문가적 업무역량 강화·도정발전 방향 모색 위한 프로그램 진행

김관영 도지사가 창조적·혁신적 도정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9일 '10월 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벤처경영전략, 돌아갈 수는 없어도 돌아볼 수는 있다'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셀에너지 양기곤 회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양 회장은 남은 성공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으신데 그런 경험을 오늘 최대한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도가 도전하자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바로 벤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이번 포럼을 계기로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주)셀에너지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1차 새로운 전북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이 양기곤 (주)셀에너지회장의 특강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다.

양기곤 회장은 '벤처경영전략, 돌아갈 수는 없어도 돌아볼 수는 있다'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양 회장은 "1999년 벤처붐이 일어날 때 (주)셀에너지를 창업해 '범유럽이동통신(GSM)'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듈을 자체개발했고 2003년 국내 벤처기업 최고 수출액 4억불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주)셀에너지는 세계 최신 기술력을 자체 보유하고 글로벌 선도업체와 활발한 파트너링을 통해 가능했으며 용기, 도전, 창의,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전북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 전북 정보통신 기업 집적화를 위한 과제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순항'

대상기업 2개사 채용 후보자 44명선발·맞춤형 교육 중

군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전북신화학융합원에서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한창이다.

올해 7월 산업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도는 (사)전북신화학융합원(이하 융합원)·참여기업(성일하이텍(주)과 에스이머티리얼즈(주))과 함께 8월 초 이차전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주관기관인 융합원과 참여기업이 직접 채용후보자 선별을 위한 채용설명회(자기소개서 컨설팅, 기업의 채용직무 설명 및 현장 면접 등)를 개최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채용사이트, TV자막 버스 광고 등) 홍보를 통해 37에 걸쳐 44명을 선별했다.

융합원은 최근 리모델링한 현대적인 강의실과 휴게공간 제공, 안

전한 이동을 위한 전용차량 운영, 군산의 지역 교육생들을 위한 숙소(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참여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용 후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이차전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현장직으로 근무하다 해당 산업의 불황으로 퇴직했다는 교육생 김모(38)씨는 "이차전지산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듣기만 하고 잘 몰랐는데, 개념부터 현장 직무까지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또 취업하게 될 기회까지 갖게 되어 기쁘다며 취업 후 기업의 이해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채용후보자 44명은 모두 전북도 민들로 3개월간의 기본 및 현장 교육 수료 후 오는 12월에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취업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 강소특구, 'Value-up R&BD' 지원사업 우수과제 선정

'이브이엔솔루션'·'에프엔에스텍' 기업 2개 과제 확정... 사업비 9억 4000만원 지원 수혜

군산시는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하 군산 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에서 특구 기업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협력 Value-up R&BD' 지원사업에서 11: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 최종 3과제 선정 중 2개 과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 및 강소특구 간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지원사업으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 선정은 14개 강소특구에서 1억원씩 출자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군산 강소특구에서 2개 과제가 확정되어 총 9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받게됐으며, 이는 군산 강소특구의 우수성이 입증

된 사례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이브이엔솔루션과 에프엔에스텍 기업으로 강소특구 지정 이후 발굴된 기업으로 매년 지역 특성과 육성사업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R&BD지원에서 수혜 받아 기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력 Value-up R&BD' 지원사업의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기업 기술성, 사업성, 사업화 역량 및 사회적 가치 측면의 다방면 평가를 통해 평가받아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이브이엔솔루션(이하 기업) 업체는 '배출가스 제로화를 위한 2.5톤 이상 상용차용 540V급 고전압 월드 체인 냉동냉장 시스템'으로 개발한 제품은 배출가스가 제로이며, 연강

연료비 절감도 400~500만원으로 50% 이상 절약되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탁월하다. 또한, 시장분석 결과 배송현장 등 다방면의 유통/운송사인 마켓컬리, GS글로벌 등 물류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잠재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에프엔에스텍(이하 기업) 기업은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분차단 파우치 전문기업으로 고기능성, 고부가 파우치 필름 국산화에 노력하는 업체로 이차전지를 복합필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과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용 수분차단 복합필름 파우치와 같은 필름은 일본 DNP社와 중국 superpacking 社로부터 전량 수입해 사용 중이다.

타사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과 국내 수요기업의 다양화가 많은 만큼

제품 개발성공 시 기존의 수입 대체 품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 강소특구에서는 두 업체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산학연관의 혁신네트워크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 기차 부품·소재' 협력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 3년간 연구소기업 16개 설립, 기술이전사업화(R&BD) 29과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 91건, 창업 29건, 투자유치 137억원으로 이를 통한 사업수혜기업 기여 매출 141억원, 일자리 창출 517명 등의 성과를 내었으며 특화분야 육성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빛으로 피어나는 모양성' 콘텐츠 제공

전북 콘진원, '지역연계 첨단 CT실증 사업'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역연계 첨단 CT실증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을 위해 19~23일 제5회 고창모양성제 기간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빛으로 피어나는 모양성' 상설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 콘텐츠들은 모양성제의 첨단화를 위해 지역문화축제 실감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북도, 고창군 등에서 2년 7개월간 총 사업비 82억 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R&D)(과제명 지역문화축제 실감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성과로 진흥원 주관 (주)지위드, (주)나

인이즈, (주)뱅크, 서경대 신학력재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콘텐츠로는 고창읍성의 역사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프록션 맵핑 영상이 고창읍성 성벽에 연출될 예정이다. 또한 음성 내 맹종축락에서는 고창의 계절과 날씨 정보를 통해 연출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쇼가 진행되며, 답성놀이를 모티브로 연출한 인터랙티브 실감콘텐츠를 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악 오케스트라 실감콘텐츠, 고창읍성 스테이션, 모양성 월드(메타버스), 수성전 VR 등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기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SeeYoung SeeYoung Co., Ltd.

전주매일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유)시영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15
063-581-0681~2

- 정보통신공사, CCTV, 구내방송장치, 교통정보 전광판 -

www.seeyoung.kr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